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서현수

단국대학교 패션제품디자인학과 강사

요약

본 연구는 에코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에코패션디자인은 친 환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에코 디자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고찰로서 에코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의 패션으로 제한한다.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를 탐구한 결과, 기능의 융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으로 조명되었다. 기능의 융합성은 인간의 편리 및 안전을 위한 과학적 기능성과 다기능성을 갖추으로써 제품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형태의 내구성은 심미적 가치를 지님으로써 기능적으로 내구성이 지속 되는 한 형태적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된 패션이 지닌 가치를 의미한다. 감성의 치유성은 외적 표현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에 있어서도 자연 친화적 정신성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자연 소재를 인공적인 가공 없이 활용한 것이나 자연의 형태를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를 사례 연구를 통해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고찰한 결과, 기능의 융합성은 로하스, 형태의 내구성은 미니멀리즘, 감성의 치유성은 내추얼리즘의 패션 이미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에코패션디자인, 기능의 융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

I. 서론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 발전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및 인류의 종말 가능성,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대안 이념의 공백, 국가들의 경계해체, 정보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동 등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르는 환경 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 국가, 심지어 미개발 국가에게도 확산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서의 환경운동은 에코디자인의 실체와 이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의 접근방법 변화를 바탕으로 패션 분야에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디자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프리미에르 비전(Premier Vision)에서 자연소재에 대해 논의되면서 이를 계기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채와 천연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에코패션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코패션디자인은 초기에는 '에콜로지(ecology)' 개념을 중심으로 색채, 소재를 중심으로 발전되다가 최근에 들어 친환경적 사고의 확대와 에코 디자인 개념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계획 및 활용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에 나타난 생태학적 개념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는 이경아, 전해정(1998)²⁾, 전소영(1995)³⁾, 정연자(1996)⁴⁾, 한소원(1995)⁵⁾ 등의 연구를 통해 환경 보호, 자연 보호, 자연으로의 회귀 등을 강조하는 순수 자연 이미지의 에콜로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김외선(2003)⁶⁾, 손세란(2003)⁷⁾, 서문정(2003)⁸⁾, 하민아(2000)⁹⁾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기술적인 측면과 자연적인 측면을 인간적인 감성으로 융합하는 뉴 에콜로지 경향 연구로 전개되었다.

즉, 1990년대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형태·기법 중심의 가시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에코패

션디자인을 고찰함으로써 에코패션디자인의 속성이나 기능이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에코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기존의 에콜로지 개념에서 진보한 뉴 에코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이전의 에콜로지 관련 연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는 개념을 에코패션디자인에 적용시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 의해 에코패션디자인을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최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에코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입의 제작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에코 디자인의 근원이 되는 생태계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에코패션디자인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 및 조형 예술의 대상으로서 미적 가치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디자인 개념인 에코디자인의 속성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패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에코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를 담은 패션디자인의 지속적 개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II장에서 이론적 고찰로서 에코 디자인의 특성과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 및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III장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의 패션으로 제한하며 앞서 고찰한 에코디자인의 특성과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에코디자인 관련 서적에 에코패션디자인의 사례로서 언급된 패션을 대상으로 한다.

II. 에코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1. 에코디자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

에코 디자인은 1970년대 이후 환경 보존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재활용과 재사용이 제시되면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디자인 대상의 기능이나 형태를 포함하여 디자인 주제나 개발과정 및 디자인 평가 부문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친환경적 디자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⁰⁾ 또한 생태학적 개념과 이에 따른 생태학적 사고체계로의 인식의 전환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미래의 디자인은 ‘미를 창조 한다’는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전 과정에 걸쳐 환경보호에 유익한 생태학적 사고로의 전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상업주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미덕으로만 인식되어오던 굿 디자인(good design)에 대해 반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대체디자인과 필요를 위한 디자인, 나아가 그린디자인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린 디자인은 1980년대의 환경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자연 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다. 1986년 영국의 디자인 카운실(design council)이 “디자인을 통한 승리”(winning by design), 또는 “디자인에 의한 이익”(profit by design), “그린 디자이너” 등의 이름으로 기획한 전시회는 에너지 사용, 내구성, 리사이클링, 시장성 등 특정 제품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로서 1980년대 디자인 문화의 특성을 대변하였다.

2. 에코디자인의 특성

에코디자인의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그린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에콜로지 이념을 담은 디자인 활동이 전개되어왔다. 그린 디자인은 80년

대 급속히 많은 관심을 받으며 그 분야가 확대된, 분명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디자인의 문제 해결에서도 분명히 고려해야할 전제이지만, 새로운 디자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디자인의 일부분이라고 스티븐 베일리(Steven Bailey)는 주장했다. 현명한 디자인은 항상 재료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자연의 법칙과 자연 그 자체에 일치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도 현명한 디자인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의 폐해는 그 대부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인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베일리의 주장은 공허한 이상주의의 이론으로 들릴 정도로 오늘날의 환경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모든 인간의 생활 그 자체를 “그린”이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그것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갖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그린 디자인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가지고 디자인 의식을 전환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로 에코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에코 디자인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가들에 따라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로시 맥켄지(Dorothy Mackenzie)는 환경을 고려하는 디자인 개발의 4가지 유의할 점으로 첫째, 자연적 공예 유산과 지구자원 유지 가능성, 둘째, 실용성과 효율성, 셋째, 최소주의, 넷째, 다목적 적용성을 제시했다.¹¹⁾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욕망을 위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필요를 위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것을 더 갖고자 하는 디자인에서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유행이나 모델 변형에만 치중하는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적 형상성을 탐구하는 디자인으로, 물질적 풍요와 욕망 충

죽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것의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으로의 전향을 제시하였다.¹²⁾ 또한 권영걸은 사회 생태학적 균형이라는 개념 아래 환경의 보존과 개선이라는 측면과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 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 에코 디자인 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특히 에코 디자인에서는 모든 제품이나 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얼마나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하였다. 한편 송인호¹⁴⁾는 인간 가치와 자연가치의 생태적 균형을 전제로 생산, 사용자, 환경의 세 가지 모두가 만족하는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에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시화¹⁵⁾는 환경영향, 제품 수명, 지구 자원 유지 가능성이라는 3가지의 키워드는 에코디자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에코 디자인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실제와 비평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향과 분석이 이루어져왔는데 그 이념과 발상, 용어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에콜로지와 환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체디자인, 필요를 위한 디자인, 그린디자인, 에코 디자인으로 진보해 온 것은 디자인 분야의 이론과 실제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및 제안을 종합해 보면 에코 디자인은 그린 디자인보다 더 진보적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을 말하며, 이 개념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 자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나친 제품개발과 지구 상태유지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려는 진보적인 환경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따라서 에코 디자인은 미래의 지구 생태 유지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그에 관련되는 모든 디자인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코 디자인의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에콜로지를 배경으로 생겨난 디자인 개념인 그린 디자인과 에코 디자인은 그 발생 배경에서는 유사성을 지니지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린 디자인은 자연환경 보호를 주된 목표로 하여, 자연 보호, 자원의 절약을 그 방법으로 하지만, 에코 디자인은

<표 1> 용어 정의를 통한 그린디자인과 에코디자인의 비교

디자인 개념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특성	*디자인 대상의 기능이나 형태에 있어서 ‘그린’이 미지가 의미하는 친 환경적 개념을 갖는 디자인 *패용이용, 화장실의 물 절약, 고층건물의 절전형 스위치, 편집디자인을 통한 종이 절약, 수용성 인쇄잉크, 생수 병 플라스틱 재료의 선택, 천연 염색 재료의 의복 재료 선택 등의 차원 *환경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자연 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디자인 대상의 기능이나 형태를 포함하여 디자인 주제나 개발과정 및 디자인 평가 부분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친 환경적 디자인 개념	기능의 융합성
		*모든 제품이나 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얼마나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평가되며, 인간가치와 자연가치의 생태적 균형을 전제로 생산, 사용자, 환경의 세 가지 모두가 만족하는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형태의 내구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편리를 위한 디자인, 치료적 디자인,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한 디자인, 자원 절약 디자인, 환경보존 디자인	감성의 치유성
대상	자연 보존을 위한 디자인	자연 보존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인간과 환경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 아래 전개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에코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인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에코 디자인은 기능의 융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의 가치를 지닌다.

III. 에코패션디자인

1.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본 연구에서는 에코패션디자인의 이론적 고찰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결과, 에코패션디자인은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인간의 편리 및 다목적성을 지니는 기능의 융합성, 쓰레기 및 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계획적 폐기를 줄일 수 있는 형태의 내구성, 인간의 자연감성으로의 회귀 및 획일화의 탈피를 통한 감성의 치유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에코패션디자인을 고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다음의 3가지 미적 가치에 대해 에코패션디자인의 배경 및 특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1) 기능의 융합성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의 기능의 융합성은 에코디자인의 가치에 따라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것과 한 가지 의복이 다기능성을 갖추으로써 의복의 가짓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치료를 위한 기능을 갖추거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능을 갖춘 것,

과학 기술의 적용을 통해 신체적, 상황적 장애에 있는 인간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되며 형태의 특성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패션을 의미한다. 에코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능의 융합성이라는 가치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식과 과학의 발전을 꼭 필요한 곳에 접목시켜,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생겨나는 병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의 발전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환원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절대적 장애의 상황뿐 아니라 상대적인 상황적 장애 및 성별에 의한 장애 등 인류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감소시키고자하는데 의의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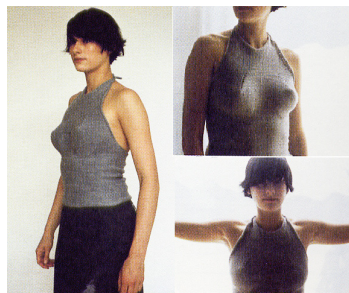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능의 융합성을 지닌 에코패션 디자인 사례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의복으로,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기능을 지닌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둘째는 다기능성을 가진 의복으로, 한 벌의 옷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의 융합성을 높임과 동시에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고 보관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과학 기술의 활용

기능의 융합성 중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1>은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위한 지도 내장형 의복으로, 자켓에 지도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¹⁶⁾ <그림 2>는 네덜란드 학생의 작품으로, 3D기술을 이용한 니팅 기법을 통해 여성의 인체를 정확하고 편안하게 감쌀 수 있는 의복이다.¹⁷⁾ 이는 여성들이 적용된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수성을 갖는 직업 활동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불편을 겪는 정도가 클 수 있다는 성별에 의한 상황적 장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림 3>은



<그림 1> 기능의 융합성 1
(출처: 「Ellen Lupton」, 2002, p.120)



<그림 2> 기능의 융합성 2
(출처: 「Alastair Fuad-Luke」, 2002, p.128)



<그림 3> 기능의 융합성 3
(출처: 「Ellen Lupton」, 2002, p.181)

에어컨디셔너가 내장된 점퍼로 군인들이 전쟁 시에 극도의 추위 혹은 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사례이다. 이 점퍼는 비행 시 기온이 체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따뜻하게 난방의 기능을 하고 만일의 경우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극도의 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체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¹⁸⁾ 이러한 사례는 직업에서 오는 상황적 장애를 고려하는 인식에서 출발 된 것이다. 이외에도 센서가 부착 된 스포츠 웨어는 운동 시 신체의 컨디션을 체크 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운동선수들의 부상을 줄이고, 최상의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¹⁹⁾이나, 의복과 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몸속에 포도당이 떨어지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인슐린 주사를 놓아 주는 속옷, 심장과 가까운 곳의 땀이 수시로 맥박과 심장 박동을 체크하여 심장마비를 진단하고 위험을 예방하기도 하는 의복 등의 사례도 기능의 융합성 중 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에코패션디자인 사례에 포함된다.

(2) 다목적성

기능의 융합성을 지닌 에코패션디자인으로 다목적성을 지닌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 벌의 옷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고 보관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빅터 파파넵의 줄이기 위한 디자인의 구현을 통한 에코디자인의 가치를 지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4>는 평소에는 일반적인 스커트의 형태이다가, 필요에 의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야외에서의 쿠션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의복이다.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이 스커트는 바람을 주입하면 언제든지 쿠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지닌다.²⁰⁾ <그림 5>의 왼쪽은 날씨와 오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의복이다. 머리와 얼굴은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야를 방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투명한 소재를 얼굴 앞면뿐만 아니라 옆까지 사용하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옷의 앞부분에는 책이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등 부분은 트임을 주어 팔의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오른쪽 의복은 등산이나 여행 시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로써 손의 사용이 자유롭도록 하며, 다른 가방이나 보관 용기의 필요를 줄이도록²¹⁾ 다기능성을 지닌 의복 디자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6>은 씨 피 컴퍼니(C. P. Company)에서 디자인 한 다기능성 의복의 사례로, 야외에서의 안전한



<그림 4> 기능의 융합성 4
(출처: 「Ellen Lupton」, 2002, p.188)



<그림 5> 기능의 융합성 5
(출처: 「Marie O'Mahony & Sarah E. Braddock」, 2002, p.154)



<그림 6> 기능의 융합성 6
(출처: 「Marie O'Mahony & Sarah E. Braddock」, 2002, p.162)

생활을 위해 디자인 된 자켓의 일종으로 이는 비
옷, 텐트, 의자, 침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²²⁾ 씨 피 컴퍼니에서는 이 외에도 후드
에 고글이 합체된 디자인의 점퍼, 탈부착 가능한
조끼가 달린 스웨터 등 다기능성 의복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의 융
합성은 과학의 활용을 통한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
는 것과 다기능성을 통한 것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의 과
학 기술의 적용은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소모를 야
기시키는 것이 아닌, 신체적, 상황적 장애를 극복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두 가지 측면 모두 편리
성, 효율성, 다기능성의 미적 가치를 지닌다.

2) 형태의 내구성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의 형태의 내구성은
영구한 제품 형상성을 창출하여 그 외형적 조형성

에 의해 대상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 형태의 내구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
미한다.

형태의 내구성은 영구한 미적 형상성을 지닌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²³⁾ 이는 과다
한 장식이나 순간적인 형상성 재현을 통한 디자인
은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뿐 아니라 미학적인 ‘조
형성’, ‘심미성’과의 문제에도 부딪쳐 제품 수명
주기를 단축시킨다는 것으로, 최소성을 지닌 디자
인, 단순성을 지닌 디자인은 그 수명이 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영구한 형태의 추구를 이상으로 했던 고전적
모더니즘 디자인의 원리와 “적을수록 더 좋다(Less
is more)”는 모더니즘의 슬로건이 다시 디자인 가
치 기준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빅터
파파넬은 복잡한 장식이나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형태는 그 수명이 길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에
서의 형태의 내구성이란 최소성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형태의 내구성 1
(출처: 「Ellen Lupton」, 2002, p.112)



<그림 8> 형태의 내구성 2
Jil Sander, 2014 S/S RTW Millan
(출처: www.jilsander.com)



<그림 9> 형태의 내구성 3
(출처: 「Alastair Fuad-Luke」, 2002, p.129)

패션에서의 최소성이란 불필요한 장식과 디테일을 배제함으로써 오랜 기간이 지나도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⁴⁾ 최소 표현은 단순함, 명료함,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조형성을 창출함으로써 표현의 절제와 최소화를 추구한다. <그림 7>은 로버트 스톤(Robert Stone)이 디자인한 기본적인 화이트 티셔츠이다. 소재, 색채, 장식, 실루엣 등 조형적 요소의 모든 점에서 최소성을 갖는 디자인으로, 시간이 지나도 심미성의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 형태의 내구성을 지니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착용자에게 옷을 입힌 상태에서 인체에 딱 맞게 밀착시킨 뒤 아웃라인을 바느질함으로써, 솔기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대량 생산된 평범한 흰 셔츠가 간단한 과정을 통해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8>은 질 샌더(Jil Sander)의 디자인으로, 소재, 색채, 장식, 실루엣 등 조형적 요소의 모든 점에서 최소성을 갖는 디자인 사례이다. <그림 9>은 울 소재 펠트를 이용해 만든 실내용 슬리퍼로 발을 감싼 뒤 벨크로 테이프로 사이즈에 맞게 조절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펠트를 단 한 조각만을 이용함으로써 봉제 과정을 단축시키고, 재료를 줄이고,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기능의 내구성도 동시에 지니는 사례²⁵⁾로, 최소 장식, 디테일로 제작 재료의 최소화를 통해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 중 형태의 내구성을 담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나타나는 에코패션디자인의 형태의 내구성은 미적 형상성과 관련된 지속성, 최소성이라는 미적가치를 갖는다.

3) 감성의 치유성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감성의 치유성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산업 발달로 인해 인간의 감성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감성적 치유를 위해 나타는 디자인 가치이다. 이는 디자인이 시대적 요구와 정신의 표현을 목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과학의 발달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작되는 대량 생산 및 획일화에 지친 현대인의 감성을 돌보며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에코패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의 치유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자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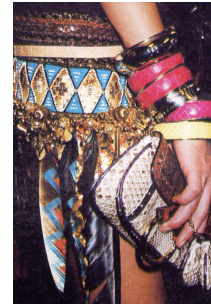
소재나 색채 등을 통한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



<그림 10> 감성의 치유성 1
Yoshiaki Hishinuma, Fall, 2001
(출처: 「Ellen Lupton」, 2002, p.219)



<그림 11>
감성의 치유성 2
'Semplicity with Surpri' by Youn, F/W, 2005-2006
(출처: 「Claire Wilcox」, 2001, p36)



<그림 12>
감성의 치유성 3
Dolce & Gabbana, S/S, 05
(출처: 「W」, 2007, p117)

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 소재를 그대로 활용한 의복이라든지, 천연 염색에 의한 자연의 색 재현 등을 통해 자연의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의도가 담긴 것이 해당된다. 이는 자연보호와 자원의 절약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제로 울이 풀린 것, 실제 자연의 색이 나는 것을 화학 가공하지 않은 것, 천연섬유의 이용, 해진 천의 재사용, 낡은 천의 재활용, 실제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이용하는 것 등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생태계 보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림 10>은 자연의 형태를 패션에 적용함으로써 에코 패션디자인에서의 자연성을 표현한 사례로, 나무껍질의 형태를 자켓에 적용시킴으로써 자연의 형태 재현을 통해 자연성을 지니는 에코패션디자인의 예이다.

(2) 비결정성

비결정성은 감성의 치유성을 지니는 패션을 복식 조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선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의복과 신체의 피트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착용을 통해서만 의복의 실루엣이 완성되는 비구조적, 비구축적 실루엣은 착용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비결정성이 반영된 의복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여밈과 햄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착용 방식을 표현하게 된다. 서구의 복식처럼 몸에 꼭 맞는 것이 아니라 인체와 무관하면서 인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출할 수 있는 자율성,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인 옷으로 착용자에게 능률적으로 부여되는 권한이다.²⁷⁾ 즉 여기서의 비결정성이란 형태나 용도의 열린 개념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착용자의 착용 방법에 따라 형태 및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열린 개념의 패션이라는 미적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의복은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옷들이 입혀지면서 특별한 실루엣을 이루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입을 수 있고, 그 방식 또한 입는 이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비결정성을 통해 에코 패션디자인의 자연성을 지닌다.

(3) 토속성

과학의 발달로 인한 첨단 기술의 활용으로 세계가 통합되어 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획일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로부터의 탈피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문화의 고유성이 변질되는 현대 사회에서 고유문화를 탐구하여 지역적 특색을 표현하

<표 2>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에코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	특성	적용 방법	키워드	사례
1) 기능의 융합성	과학기술의 활용	-상황적 장애를 고려	과학성	
	다목적성	-기능의 효율을 높임 -줄이기 위한 디자인	기능성	
2) 형태의 내구성	최소성	-소재, 장식, 기법의 최소성을 통한 영구한 미적 형상성	단순성	
3) 감성의 치유성	자연성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	치유성	
	비결정성	-열린 개념의 형태나 용도	자율성 비정형	
	토속성	-획일화로부터의 탈피 -고유문화성	무작위성 비대칭 비정형 민족성	

고자 하는 것, 대량 생산의 획일화로부터 인간의 손에 의한 특유의 무작위성, 비 규칙성을 지닌 개인의 특색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속성이란 고유 문화가치를 담은 색채나 형태의 표현, 수공예 기법을 통한 디자인을 말하며, 고유 문화성과 수공예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지닌다. 고유문화성이란 토속성의 본래의 정의에서 보여 지듯이 ‘민족 고유의 복장에서 그 토속적인 분위기나 요소들을 의상이나 패션 악세서리 등에 도입한 패션 경향’으로, 조형적 특성이나 기법을 통한 고유문화 이미지 재현성을 의미한다. 열린 개념의 전통성, 민족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에코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토속성의 고유문화성 표현은 가공되지 않은 광물이나 자연물을 디테일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거나, 민속 복식 요소의 표현을 통한 민속성의 표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과 반대되는 의미인 수공예 기법을 추구하게 된다. 하나하나 꿰어 만든 목걸이나 의복의 디테일, 손뜨개의 비선형, 비규칙, 무작위성, 왜곡, 중첩, 비 예측성 등은 기계로는 표현이 어려우며, 인간의 손에 의한 자연의 미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에코패션 디자인에서 독창성과 희소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갖는다. <그림 12>는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통해 아프리카의 고유문화성을 지님과 동시에 광활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내추럴한 소재의 장식들은 수공예를 이용해 구슬을 꿰고, 엮어서 만들어으로써 획일화를 탈피하여 무작위적이며 비대칭, 비정형의 조형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에코패션디자인의 패션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는 기능의 융

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에코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 중 기능의 융합성은 기능과 속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인간의 건강과 편리를 위한 기능성을 추구하는 패션 사례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건강한 사회생활 유지 및 신체 건강 유지 및 치료를 위한 기능성 소재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것, 다목적성을 지닌 디자인이다. 다음으로, 형태의 내구성은 최소 표현을 중심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영구한 미적 형상성 창출을 위한 디자인으로 고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성의 치유성은 자연 보호 및 오염 물질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자연 소재의 활용 및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를 위한 자연 형태의 재현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사례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의 통합에 기인한 획일화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고유 문화성과 수공예성을 통해 독창성, 희소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살펴보면, 기능의 융합성은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로하스(Lohas) 패션 이미지로, 형태의 내구성은 기능성과 최소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 패션 이미지로, 감성의 치유성은 자연 보호 및 오염 물질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자연 소재의 활용 및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를 위한 자연 형태의 내추럴리즘(Naturalism) 패션 이미지로 집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로하스

로하스(Lohas)란 웰빙(Well-being)에서 분화된 개념으로, 웰빙이 개인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라이프스타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떠오르게 된 개념이다. 미국의 내추럴마케팅 연구소가 2000년 처음으로 발표한 개념인 로하스는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표 3〉 에코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

에코패션디자인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패션 이미지
기능의 융합성	과학 기술의 활용 · 효율성 · 편리성 · 삶의 질 향상 · 기능의 효율성	⇒	로하스 · 환경성 · 건강성
	다목적성 · 재활용성· 감소성 · 단위상· 해체성		
형태의 내구성	최소성 · 감소성 · 지속성 · 영구한 미적 형상성	⇒	미니멀리즘 · 기능성 · 최소성
감성의 치유성	자연성 ·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 · 비결정성의 열린 개념	⇒	내추럴리즘 · 자연성 · 수공예성
	비결정성 · 열린 개념의 형태 및 용도		
	도속성 · 고유문화성·수공예성 · 독창성· 회소성 · 전통성· 차별성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친 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로하스 즉이란 로하스의 약자의 개념 그대로 보면 지속가능성, 그리고 건강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건강, 환경, 사회정의, 자기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에 가치를 둔 소비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후대에 물려 줄 소비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증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행복 추구를 위한 소비 행위로서의 웰빙이 아닌 친환경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과 운동이 동반되는 웰빙적 소비가 로하스족의 특징이다.

따라서 로하스적 스타일이란, 로하스의 근원이 되는 웰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에코 디자인의 정신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 스타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환경과 건강을 키워드로 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로하스는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축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코패션디자인 가치인 건강을 위한 기능의 융합성 연관성을 갖는다.

기능의 융합성의 가치 중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능의 효율성, 편리성, 상하적 장애의 극복 등의 가치는 로하스의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기능의 융합성의 가치 중 다목적성은 재활용, 해체를 통한 환경 보호를 통해 로하스 스타일과 연관성을 지닌다.

2)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란 최소한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미술에 부각된 한 경향으로서 예술에 있어서 자기표현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히 단순

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해 가는 예술 양식을 말한다. ‘최소한의’ 라는 미니멀(minimal)에 ‘ism’을 덧붙인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주의라는 의미로 미술과 음악부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²⁸⁾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이란 장식적인 디자인을 최대한 없앤 심플한 디자인이나 실루엣의 이미지를 말한다. 나현신, 전해정은 ‘복식의 미니멀리즘 양식’에서 ‘복식에서의 미니멀리즘은 장식적인 디테일이 배제된 단일한 색채, 단일한 형태로 환원된 복식, 인체 그 자체로 환원된 복식,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된 복식, 공업용 재료를 소재로 한 복식이나 조각적 요소를 도입하여 발견된 오브제로서의 복식, 재질 표면 특성에 의한 반사효과, 투명효과, 빛의 효과로 인체의 형태미를 표현한 보식, 직선, 원,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문양의 반복적 배열을 보이는 복식으로 나타난다’ 고 하였다.²⁹⁾

본 연구에서는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에 따라 형태의 내구성을 고찰한 결과 미적 가치에 따라 최소성을 추구함으로써 조형적 특성이 미니멀리즘의 패션 이미지를 지닌 스타일로 집약됨을 볼 수 있었다. 에코패션디자인에서의 미니멀리즘이란, 지구환경 보존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에코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일반적인 미니멀리즘이 트렌드적 성향 추구의 결과로 최소성을 추구한다면, 에코패션디자인에 있어서는 영구한 미적 형상성 창출을 위해 최소성이 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계획적 폐기에 의한 쓰레기 및 오염물질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에코디자인 가치를 전제로 한다.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 중 형태의 내구성은 감소성, 최소성, 영구한 미적 형상성, 지속성 등을 통해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밀접한 조형적 특성을 지닌다.

3) 내추럴리즘

내추럴리즘은 현대 사회에서 자연파괴와 환경오

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에콜로지에 의해 강화된 하나의 경향으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³⁰⁾ 19세기 미술 비평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카스타나리는 ‘1863년의 전시회 평’에서 “내추럴리즘과는 예술이란 인생의 모든 양성을 모든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술의 유일한 목표는 자연을 강렬하고 철저하게 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³¹⁾ 그러나 여기에서의 재생은 결코 순수한 모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외형적인 형식만으로 그것을 단순한 모방으로 여기는 것은 빌플린의 예술작품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양식의 이중 근원’ 내용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예술의 한 유형으로서 내추럴리즘은 자연 원형의 순전한 모방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³²⁾ 즉, 내추럴리즘의 표현이란 자연 대상을 양식화 하거나 어떤 관념적 표현을 행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예술제작 태도³³⁾로서, 이러한 내추럴리즘의 개념은 패션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에코패션디자인에서의 내추럴리즘이란 자연성, 수공예성을 통해 에코디자인의 감성의 치유성의 가치와 연관성을 갖는다. 자연성과 비결정성, 토속성은 각각 자연 감성으로의 회귀, 열린 개념, 수공예성, 비대칭성, 희소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단순한 자연의 형태 재현이나 자연 소재 활용이 아닌 감성적 목적과 더불어 화학 물질 배출의 감소를 통한 자연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토속성에 있어서는 민족성을 표현하는 가시적 조형성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문화의 통합으로 인한 획일화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고유문화성과 수공예를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고유문화성이 수공예를 통해 내추럴리즘과 연관성을 지닌다.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패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에코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고 최근의 에코패션디자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통해 에코패션디자인의 가치를 담은 패션디자인의 지속적 개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코패션디자인은 자연 보호, 자원의 절약 등의 목표의식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 윤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자연 보호나 자원의 절약 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다는 것은 기존의 에콜로지 관련 친환경 디자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의 모색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즉 에코패션디자인이란 인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디자인의 대상인 패션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에코 디자인의 가치를 탐구한 결과 에코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는 기능의 융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셋째, 앞서 탐구한 에코 디자인의 가치에 근거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패션디자인에 대해 고찰한 결과, 편리성, 효율성, 다기능성의 가치를 지닌 기능의 융합성은 로하스 패션이미지로, 지속성과 최소성의 가치를 지닌 형태의 내구성은 미니멀

리즘 패션이미지로, 자연성, 비결정성, 토속성의 가치를 지닌 감성의 치유성은 내추럴리즘 패션 이미지로 집약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에코패션디자인은 인간의 편리와 자연 보호를 위한 기능의 융합성을 지닌 로하스적 디자인, 영구한 미적 형상성을 위한 미니멀리즘, 자연감성으로의 회귀 및 수공예를 통한 감성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열린 개념의 내추럴리즘의 이미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에코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가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에코패션디자인의 아이디어 발상에 근거를 제시하고, 최근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패션디자인의 분야에서 지구 자원의 절약 및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의 패션디자인 인식의 전환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문헌

- 1) 한소원, 김영인 (1999). 1990년대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이미지, 의류학회지, 23(2), p.296.
- 2) 이경아, 전해정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7(-), pp.253-273.
- 3)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2.
- 4) 정연자 (1996).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0(-), pp.227-237.
- 5) 한소원 (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28.
- 6) 김희선 (2003). 뉴에코 패션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23.
- 7) 손세란 (2003). 생태환경적 관점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서문정 (2003). 에코패션디자인의 개념정립과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의 실천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7.
- 9) 하민아 (2000). 뉴에콜로지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34.

- 10) 서문정, 앞의 책, p.9.
- 11) Dorothy Mackenzie (1991), *Green Design*, London: Laurence King, p.165.
- 12) Victor Papanek (1995). 녹색위기, 조영식 옮김 (2011). 서울: 서울하우스, pp.62-223.
- 13)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 서울: 국제, p.105.
- 14) 송인호 (2002), 건축역사 연구, 서울: 한국건축 역사학회, p.105.
- 15) 정시화 (1998), 디자인의 형상성, 미간행, p.107.
- 16) Ellen Lupton (2002). *Skin*,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150.
- 17) Alastair Fuad-Luke (2002), *The Eco-Design Handbook*, NY: Thames & Hudson, p.128.
- 18) Ellen Lupton, op.cit., p.181.
- 19) Alastair Fuad-Luke, op.cit., p.128.
- 20) Ellen Lupton, op.cit., p.188.
- 21) Marie O'Mahony and Sarah E. Braddock, *Sportstech* (2002), NY: Thames & Hudson, p.155.
- 22) Ellen Lupton, op.cit., p.186.
- 23) 정시화, 앞의 책, p.161.
- 24) 김은덕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25) Alastair Fuad-Luke, op.cit., p.129.
- 26) 이정후, 양숙희(1997).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 27) 최지영, 간호섭 (2002). 잡노마드의 문화와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 p.138.
- 28) 동아 새국어 사전 (2011). 이기문 감수, 서울: 두산동아
- 29) 나현신, 전해정 (1999). 복식의 미니멀리즘 양식-60년대와 90년대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29(-), pp.132-133.
- 30) 이경아, 전해정, 앞의 책, p.253.
- 31) Peter N.Skrine & Lilian R. Frust (1986), *Naturalism*, NY: Methuen, p.6.
- 32) 권원순 (1982). 추상과 감정이입,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p.39.
- 33) 이주연 (1992). 라파엘로 전파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2.

A Study of the Formative Features and Aesthetic Values of Eco Fashion Design

Suh, Hyun Soo

Lecturer, Dept of Fashion Merchandise Design,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an aim of defin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co fashion design since the 2000s by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eco design within a sociocultural context, studying eco design in fashion design and the aesthetic values of eco fashion. Eco design takes a human ethical approach, with a goal of protecting nature, saving resources and thu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By analyzing eco design since the 2000s in order to set up a new theoretical standard, we found that the main values of eco design concern convergence of function, continuance of physical beauty, and naturalism. Convergence of function implies convenience and dual functions. Continuance of physical beauty is surviving artificial and planned obsolescence. This demands the fewest decorations. "Less is more" is the best expression to explain the method of continuance of physical beauty. Inner healing was found in the designs that return to a green-friendly emotion. Mostly natural materials were used. Lastly, the return and strengthening of local customs stems from the desire to escape the uniformity brought about by mass produc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s world has blurred cultural boundaries. The study of local customs is an attempt to make meaningful distinctions between different reg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pursued to carry out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of eco desig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its functional side as well. This new set of standards will be useful for future studies that requi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ase analysis.

Key words: eco fashion design, convergence of function, continuance of physical beauty, inner healing